傘下支部動靜

▲協會本部

①재고품 入札실시 : 협회는 최근 주변 去來경기의 不況과 在庫品의 누적을 고려하여 3개품목(황기, 패모, 작약)에 대한 입찰 공매를 실시한 바 있다.

※입찰 결과 : 상기 입찰공고에 응찰한 회사는 총 9개사였으나…진성상사, 코베루역, 세계제약, 삼흥물산 등 4개사에 낙찰되어 재고 황기 3만6천98근 전량이 판매되는 고무적인 결과를 얻게 되었다.

주위에서 참관한 많은 생약 관계자는 협회의 발전적 위상이 계속 확대되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②日本生藥分野 현황시찰 : 黃키九 副會長과 裵永斗 사무局長은 지난 9월6일부터 9월13일간에 걸쳐 日本 大阪 및 東京지역의 生藥分野 유통현황과 生藥材加工 機械 제작현황에 對한 視察을 마치고 돌아온바 있다.

시찰기간중 主로 한방分野 무역회사 5개소 省力化된 농산물加工 기계제작소 3개소등을 見學한바 있으나 日本生藥관계 수입業體는 거의가 가격면에서 韓國産이 좋은줄 알면서도 3/1밖에 안되는 中國産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말하고 韓國産에 對한 수입은 현재로선 不可能한 立場이라는 견해였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좋은 제품에 대한 꾸준한 홍보와 원가절감 대책없이는 일본에 대한 새로운 수출망 확보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였다.

省力化(전 自動)된 生藥材加工 기계는 品種의 多樣化 때문에 전과정의 연결된 加工 기계는 아직 없으나 우리들의 訪問을 계기로 硏究과제로 삼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一般 농산물(單一品種)加工기계는 세척→절단→加工→포장으로부터 연결되는 自動化 시스템이 되어 우리나라(롯데등 식품회사)에도 오래전부터 去來되고 있다는 말이였다.

따라서 과정별로 된 기계를 견학하고 가다톡그등을 많이 수집해 왔을 뿐이다. 포장기계는 14일부터 전국 전시회를 갖는다는 광고를 보았지만 日程관계상 참관하지 못하고 돌아왔다(후일 일본 日精기계CO와 高橋기계제작소에서 가다톡그를 보내와서, 많은 참고자료가 되고 있다).

③삼도시호 관리요령 추가통신 : 땅표면을 부드럽게 하면 산소공급 작용으로 인하여 뿌리성장에 도움을 주므로 꼭 실시하여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추비후 김매기 하였다.

▲傘下支部

①경기도 支部會議 : 김성배 지부장은 정례 支部會議를 지난 9월16일 加平에서 召集하고 기간중 전국 생약유통현황에 대한 정보를 상호 교류하면서 지부산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바 있다.

※이날 지시 및 의견사항은 다음과 같다.

ㄱ. 지부산하 각급사무소장과 회원 상호간의 생약 정보 교류를 확대하자.

ㄴ. 지역재배 생산량과 회원확보 현황에 대한 보고 철저

ㄷ. 신현석 공판장장 사직코 양평군 사무소장으로 변경 건의

ㄹ. 지역별 소장들의 구입희망품목, 재고품목, 보유종자등에 대하여 상호협조 강화로 보급에 원활을 기하자.

ㅁ. 본부현황시달 : ○계약재배 확기, 당귀에 대한 관리 철저 ○재배시범포 설치 완료현황 통보 ○각급소장 지방회원 확보 노력 및 현황보고 철저 ○불법수입 당귀(42톤)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관세청과 협조 결과 폐기처분) ②전라북도 支部會議 : 김종근 지부장은 지난 9월20일 全州에서 月例支部會議를 召集하고 기간중 이 지역 生藥유통현황 및 作況상황등을 상호교류하면서 개편된 산하조직의 단결과 활성화를 다짐한 바 있다.

※이날 회의의 진행사항은 다음과 같다.

ㄱ. 김종윤 무주공판장장의 생약보 광고란 누락사항에 대하여 다음 생약보에 게재되도록 건의

ㄴ. 개편된 신규소장 및 공판장장 승인식

○전북도공판장장 이승엽 ○전주시 공판장장 양봉식 ○군산시 사무소장 송성섭 ○익산군 소장겸 공판장장 강병길

ㄷ. 전라북도 도공판장 현판식

입찰공고

발 주 처 :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
품 목 : 황기(1년근)……○○톤
패모……○톤
작약……○톤
자 격 : 위 해당품목 취급사업을 득한 사업자등록 필한 자
입찰일시 : 1993년 9월16일(목) 14시
장 소 : 협회 중앙공판장(경동시장내)
※ 기타 자세한 문의내용은?
대표전화 : (02) 967-4984
1993. 9. 13
약 업 신 문

안 내 말 씀

항상 귀 가정과 귀 사무소(공판장)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전라북도 도공판장을 개설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자 하오니 많은 협조와 충고를 당부드립니다.

① 전라북도 전 회원의 전산화 시설로 전산화된 곳은 5일 간격으로 물품의 가격정보를 제공하며 제공받기를 원합니다.

② 중앙과의 전산시설로 5일 간격으로 물품의 시세 및 물건 품질의 확인을 받아 전산화된 회원에게 즉시 제공을 하여 상호이익을 도모하며 농민의 정당 가격안정에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③ 각 약업사나 무역회사와 정보를 돈독이 하여 생약의 수출에 우리 물건이 고가의 가격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5일 기간으로 경매제도를 부활하여 지방의 중소약방과 한의원에 우리 생약보급에 최대한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1993년 9월 일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 전라북도 도공판장
☎ (0652) 82-8611~2
이 승 엽

〈독자투고〉

느릅나무

권 순 채

시골 어디에나 가보며는 산과 들, 언덕등지에 잘자라며 많이 볼 수 있다.

나무는 가지가 많으며 별로 크지 않으며 봄에 잎이 연한 것은 먹기까지 하며 가을에는 붉고 노오란 단풍이 아름답게 보이며 뿌리는 약용으로 쓰고 분재로도 많이 쓰는 나무인데 깊고 깊은 산골짜기에서 약도 없는 곳에서 밭이나 손에 가시가 박히어 곪고 터져서 해가 박혀 낳지 않고 또다시 곪아 터지고 할 때는 느릅나무 뿌리의 껍질을 벗기어 찌어서 붙이며는 2~3일후면 해가 빠지고 잘 낫는 것을 볼 수 있다.

느릅나무를 보고 뿌리 빛같이 누룩같이 생겼다 하여 누룩나무라고 한다.

그런데 요즈음은 온갖 약이 많이 있어 곪아 터지며는 별일이 없지만 본인이 어릴때만 하여도 느릅나무 뿌리의 껍질을 벗겨 붙이며는 파아란 해가 빠지고 누우런 독물이 빠지고 잘 낫는 것을 볼 수도 있었는데, 지금도 양약으로는 안되는 것을 민간요법으로 하면 잘 되는 것이 바로 부어 곪암을때 사용하는 느릅나무 뿌리의 껍질이 좋은 것이기에 여기 소개하는 바이다.

느릅나무는 느릅나무과에 딸린 갈잎큰키나무, 잔가지에 털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고 잎은 길둥글며 톱니가 있고 잎앞은 반들반들하나 뒤는 거칠며 꺼칠칠하다. 꽃은 봄에 피며 날개 열매는 4~5월에 익는데, 가운데 잔 털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다.

느릅나무는 느릅나무, 참느릅, 당느릅, 떡느릅, 밭들느릅, 혹느릅, 둥근난티느릅, 꽝느릅, 큰잎느릅 등이 있는데, 잎, 열매, 수피등을 약재로 쓰는데, 강장, 안태, 안산, 부종, 이뇨등으로 쓰며, 식용, 약용, 관상용, 기구제, 공업용으로도 쓰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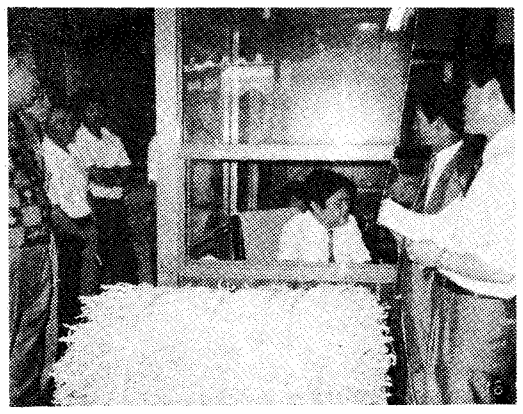
성분은 Schalein, Methylpentosan, Galaetose, Glucose, Fruetose, 학명은 Ulmus parvitolia Jaca, coreana vyeki이다.

느릅나무씨를 무이(無夷)라고 성분이 고르고 맛이 달며 독이 없고 성분이 활혈하여 대소변의 불통을 주로 치료하고 수도를 통리하고 장위의 사열을 없애주고 부종을 고치고 오림을 내리게 하고 불안증과 후를 치료 하는데 2월에 흰거죽을 채취해서 볶말리고, 봄에 열매를 따서 장(醬)을 담아 먹으면 향기로운 맛이 있다.

촌백충을 물리친다. 즉, 산유인(山楡仁)이어서 기전한 것이 좋으며 봄에 열매를 따서 그늘에 말린다.

느릅나무껍질을 유피(楡皮)라 하는데 이것은 성분이 고르고 맛이 달며 독이 없어 성분이 활리해서 대소변의 불통을 주로 치료하고 수도를 통리하고 장위의 사열을 없애주고 부종을 고치고 오림을 내리게 하고 불안증과 후를 치료 하는데 2월에 흰거죽을 채취해서 볶말리고, 봄에 열매를 따서 장(醬)을 담아 먹으면 향기로운 맛이 있다.

〈2면에 계속〉



◇ 9. 16日 中央共販場에서 入札公賣 광경.

濟州道 "삼도시호" 契約栽培地 訪問記

마무리 편

끝없이 펼쳐지는 초원을 가로질러, 시원스레 뻗어지는 순환도로를 따라 살precious 아침 공기를 마시며 남제주군 표선면 토산리에 위치한 재배지로 향했다.

골목마다 잘 포장된 도로와 아기자기한 돌담, 정성이 담뿍 담긴 잘 손질된 농토들이 꼭 유럽의 어느 농촌을 방문하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이 지역의 재배를 지도하고 있는 길두호씨와의 약속 시간이 30여분 남아 일행은 건강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명일엽(神仙草) 재배지를 방문하여 재배현황 및 향후의 수익성등에 관하여 상호간 깊은 의견을 나누며, 온갖 세월의 풍상을 인고해온 동백나무의 넉넉한 그늘아래서 안주인이 마련한 농익은 수박으로 한낮의 더운 땀을 식혔다.

토산리 일대의 2만여평의 재배지는 본 생약협회와 농촌지도소에서 재배관리하고 있으며 재배 관리하시는 분들과 향후의 관리 및 지도사항에 대해 상호 깊은 상론을 하고, 역사가 균락을 이뤄 운룡 같 숲으로만 보이는 구릉을 가로질러 제주의 또 하나의 분화구인 산굼부리에 도착 했다.

억새 숲을 헤치고 야트마한 언덕을 올라서니, 먼 옛날 용암을 분출하며 표효했을 활화산의 용트림은 깊은 잠에 메워지고 시커멓고 평평한 분지만이 남아 있었다.

이 산굼부리를 기준으로 위쪽과 아래쪽의 식물의 분포가 확연히 달라지니 자연의 조화는 참으로 오묘함을 느끼며 멀리 쳐다보이는 한라산의 서편자락에 비껴드는 석양에 여행자의 야릇한 상념에 잠겼다.

인생은 영원한 나그네며, 여행자라는 『Bagabon』론의 신봉자는 아니지만 『人生一片 浮雲滅』이란 말처럼 덧없고 짧은 나의 삶에 의미와 목표를 가져야할지, 다시금 숙연해지기만 한다.

『孟子의 離婁下編을 보면

『愛人不親이어든 反其仁하고, 治人不治어든 反其敬하고, 禮人不答이어든 反其智하라. 行有不得者어든 皆反來諸己니 其身正矣면 天下歸之니라.

詩經에 이르기를 永遠配命이면 自求多福이라』는 말씀처럼 최선을 다하여 삶을 살고 모든 책임을 본인의 탓과 본인의 노력에서 갈구하고, 순리를 쫓아 天命에 이르고 이웃에 봉사할 수 있다면 그 또한 인생의 座標가 되지 않을리……

한줄기 소슬한 해풍에 상념에서 깨어나 일행과 함께 제주지부 사무실에 도착하여 그간의 일정을 정리, 종합 분석하면서 그동안 재배관리와 지도에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신 조만식실장, 이영화대리, 각 지역의 재배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늘 健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①栽培 現況

재배지역	재 배 자	재배면적	예상수확	비 고
제주시 봉개동	김재근외 12인	19,600평	3,900kg	60kg(10a 當)
북제주군 애월읍	양창효외 9인	10,200평	2,210kg	65kg(10a 當)
북제주군 구좌읍	김명선외 6인	10,400평	2,100kg	60kg(10a 當)
북제주군 한경읍	이덕오외 155인	185,100평	40,105kg	65kg(10a 當)
남제주군 표선면	김두훈외 9인	22,000평	4,380kg	60kg(10a 當)
합 계	총 196호	247,300평	52,695kg	

②栽培 管理 중점지도 사항

1)적심 관리.

2)배수 관리.

3)병충해 예방관리.

조사 대상『89재배지』중 상기한 중점관리 사항의 90%달성 35재배지, 80%달성 3재배지, 60%달성 1재배지.

③綜合 意見

1)적심을 적기에 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

2)일부지역 탄저병 및 거염벌레 농약 살포 유도.

3)집단 재배지는 안내방송으로 재배지도 관리 유도 필요.

4)농촌 진도소에서 재배농가에 농약 및 비료의 적기 공급 협조 필요.

5)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홍보 및 관리 지침책자 발행.

부회장 林連學 제공